

# 解放以後 北韓教會의 實相을 分析한다

金 光 洙\*

- |                          |                            |
|--------------------------|----------------------------|
| I. 소련軍 進駐와 共産黨의 政權 掌握    | V. 主日選舉 反對와 基督教徒聯盟의 背行     |
| II. 五道聯合老會 結成과 無神論者와의 對決 | VI. 六·二五戰亂을 前後한 殉教者의 續出    |
| III. 基督教政黨 出現과 教會指導者의 受難 | VII. 北韓教會 存在의 全滅과 自由黎明의 苦待 |
| IV. 章臺峴教會 事件과 彈壓의 本格化    |                            |

## I. 소련軍 進駐와 共産黨의 政權 掌握

세계제 2 차대전에 있어서 일본과 대결하여 전쟁을 수행한 미국, 영국, 중국은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에서 회담하여 소위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시켜 독립케 한다는 것과 그리고 만주와 대만 등지는 중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7월 26일에는 미국과 영국, 중국과 소련까지 합하여 포츠담 선언(Potsdam Proclamation)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면서 다시 위의 조건을 강하게 제시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거절하였다. 미국은 8월 6일과 9일에 걸쳐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탄을 투하하였고 소련은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더이상 버틸 힘이 없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소련군은 재빨리 두만강을 건너 북한 지역으로 군세를 몰아 진주하였고 8월 22일에는 평양에 입성하였다. 미군은 뒤늦게 9월 8일에 가서야 하아지(John A. Hodge) 중장이 인솔하는 부대가 서울에 들어왔고 미·소 양국은 전략적으로 조치했다고 하는 북위 38도선을 가운데 두고 한(韓)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하고 조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이견이 점점 굳어져 마침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요원하게 만드는 비극을 산출하고야 말았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10월 중순에 서울에 군정청을 설치하고 아놀드 소장을 군정장관에

\* 韓國教會史研究院 院長·서울山亭峴教會 牧師·本校 講師

았하였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한다하면서 무제한으로 정치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였는  
고로 그 중에는 조선공산당도 끼어들어 한심한 결과가 되었다.

북한 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처음에는 애국지사 조만식(曹晩植)<sup>1)</sup>을 평안남도 인민정치위  
원회 위원장으로 인정하고 정치를 담당케 하였으나, 그가 소련 군정의 비행을 공언하게 되자  
곧 김일성이란 자를 등장시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여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구축  
하기에 이르렀다.

민족의 해방은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였기 까닭에 기독교 신앙생활에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북한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없이 있다고 하는 무신론자 공산당이 집권하게  
되었으므로 신앙의 자유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음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 II. 五道聯合老會 結成과 無神論者와의 對決

기독교계에서는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1945년 12월 1일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평양 장대현교  
회에 회집하여 소위 북한오도연합노회(北韓五道聯合老會)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대한 예수  
교 장로회 평양노회가 중심이 되어 평안북도의 여섯 노회, 즉 평동(平東), 평북, 용천(龍川)  
의산(義山), 산서(山西), 삼산(三山)노회등과 합의한 후에 북한에 산재하고 있는 오도(五道)  
의 16개 노회에게 모두 연락을 취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합노회 조직을 위한 회합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와같이 북한오도연합노회의 조직을 서두르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소련 군정의 태도가 점  
점 노골적으로 강경해지고 3·8선의 감시가 날로 심하여져 북한 주민의 남하는 물론이고 남  
한 주민의 북상도 금지되는 상황에 이르고 보니, 더우기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아 소련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야망이 늑늑지 않음을 예감하게  
되었는 고로 여기에 대결하기 위한 교회의 공고한 단결과 결속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장에는 김진수(金珍洙) 목사가 선정되었고 김철훈(金哲勳) 목사와 이유택(李  
裕澤) 목사, 김길수(金吉洙) 목사 등이 중심인물이 되어 공산정권 당국과 대결하는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런 고로 공산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였으며 그들의 탄압에 직면 아니  
할 수 없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절대로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에게 굴복 아니하  
기로 결의를 공고히 하였다.

오도연합노회가 결의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sup>2)</sup>

1) 조만식은 해방 직후 같은 平壤 山亭峴教會의 장로인 吳胤善과 함께 平南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  
여 북한 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2) 金光洙, 韓國基督教再建史, 基督教文社 발행, pp. 42-43.

첫째, 북한오도연합노회는 남북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총회를 대행하는 협의기관으로 한다. 둘째, 회의 헌법은 개정 이전의 것으로 하되 남북통일 총회가 열릴 때까지 그대로 사용한다.

셋째, 전 교회는 신사참배의 죄과를 통회하고 교직자는 2개월간의 자숙을 원칙으로 한다.<sup>3)</sup> 넷째, 신학교 운영은 연합노회 직영으로 한다.

다섯째, 조국의 기독교화를 목표로하여 독립기념전도단을 조직하고 전도 교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여섯째, 북한교회를 대표한 사절단을 연합군사령관에게 파견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로 한다.

북한오도연합노회를 총회로 만들지 않고 협의기관으로 한 것은 잘한 처사이었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1947년 남한의 교회들이 단독으로 총회를 계승하여 개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면서도 이 연합노회란 기구가 실제로 북한에 있어서의 총회를 대행하였다고 볼 수가 있어 총회 헌법을 사용하였으며, 그것도 일제의 강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헌법을<sup>4)</sup> 사용하였음은 현명하였다.

해방 이후 급속도로 성장 과정에 있던 교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교역자를 양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었던 고로 오도연합노회는 평양에서의 장로회신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에 이르렀고, 이 신학교육의 중책을 김인준 목사에게 부과되었다. 그리고 조국 해방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 강력한 전도운동을 펴기로 하고 그 명칭을 독립기념전도단이라 하였고 총무에 전재선 목사<sup>5)</sup>를 선임하였다. 북한 교회는 3·8선의 장벽으로 전국적 총회에 가담할 길은 막혀 있었지만 남한 교회와의 유대는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연합군사령관에게 사의를 포함하는 명분을 구실로 하여 남한교회와의 중요한 연락의 임무를 떠고서 사절단이 서울로 파견되었다.

북한오도연합노회에서 주도한 교회 지도자들은 그 뒤에 모두가 다 공산당의 박해로 순교의 면류관을 머리에 썼다. 그 중에서도 회장 김진수 목사를 비롯하여 김철훈 목사와 이유택 목사 그리고 김인준 목사 등의 신앙 투쟁의 양상은 너무나 훌륭하였기에 그 대략을 다음에 기록하고자 한다.

김진수 목사는 누가 보아도 신실한 믿음의 일군이었으며 그의 생활 양상은 철저하게 청렴 결백하여 만 사람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 과묵한 성품의 소유자인 그는 누가 묻지 않

3) 소위 ‘出獄聖徒’ 계열에서는 2개월간 休職勸懲을 固守하고 있었으나, 對共鬭爭을 위한 교회의 一致團結을 고려한 五道聯合老會에서는 그 절충안으로 自肅原則論을 내세우게 됐다.

4) 「時局의 추이와 大勢가 추진됨에 따라 그에 對應함을 느낀 總會憲法委員會의 결의」에 의하여 歐美依存主義의 脫去와 純全日本基督教로의 귀속을 목적으로 1941年 제30회 總會에서 憲法을 바꾸는 愚를 犯하였다. 金光洙, 韓國基督教受難史, pp. 255—256. 第30回 朝鮮예수교長老會 總會錄.

5) 全載先 목사는 禧年紀念傳道會 총무를 맡은 경력을 갖고 있었다.

면 별로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그러기에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중천금의 무게가 있었다. 장로의 가문에서 태어나 기독교 제통인 선천의 신성중학교와 평양의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몸에 배인 기독교 인물로 완전히 성숙하였다. 일제 말엽에 일본 경찰에 의하여 구금당하여 사형 직전에 생명을 건지게 된 그는 해방 이후에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진리 수호에 헌신하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김목사는 당시 선천동교회를 시무하고 있었으며 평양신학교에도 출강하여 상당히 분주한 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공산당에게 유린 당하자 이들과의 투쟁을 목표로하여 감연히 일어났으며 북한오도연합노회의 회장이 되어 최일선에 나섰다. 1946년 11월 30일 주일에 북한 공산당 정권이 총선거를 실시하려 하자, 그는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여기에 가담해서는 안된다고 신앙 자유를 부르짖었다. 결국 이것이 그가 공산당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며, 그해 연말 체포되어 6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아 평양 감옥에서 아오지 탄광으로 그리고 다시 홍남 감옥으로<sup>6)</sup> 끌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6·25전란으로 국군이 북상할 때 후퇴하는 공산군의 총탄에 맞아 민족을 위한 순교 제물로 일생을 마쳤다.<sup>7)</sup>

김철훈(金哲勳) 목사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실천이 앞선 믿음의 결실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그는 조만식 장로가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여 밀서를 품고 월남하여 이승만 박사와 연락을 취하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그는 1948년 2월 평양 산정현교회 목사로 부임하였으며, 오도연합노회를 주동하는 그의 신변은 항상 위태로웠다. 드디어 1949년 6월 북괴 공산군이 6·25남침을 일으키기 1년전 그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북괴 치하에서 행방불명이 된다는 것은 공산당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임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그는 북한교회를 진리로 사수하고자 달려갈 길 다간 후에 그몸을 하나님께 바쳤다.<sup>8)</sup>

이유태 목사는 오도연합노회의 간부로서 중첩되는 교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이목사는 1949년 12월 28일 평양 신현교회에서 삼일기도회 시간에 '주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최후의 설교가 됐다. 온 교인들은 그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공산당과 대결하려는 의(義)의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를 누군가가 체포하여 갔다. 그것이 그를 본 마지막이 됐다.<sup>9)</sup>

김인준 목사는 1945년 12월 오도연합노회의 결의에 따라 평양신학교 교장의 중임을 맡았다. 북괴 정권은 신학교를 수중에 넣기 위하여 소위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성에 등록하라고 강요

- 6) 興南에서의 獄中生活에 관하여는 당시 함께 服役했던 現 서울東老會 소속의 黃鳳燦 목사로부터 證言을 들을 수 있었다.
- 7) 筆者의 글인 韓國基督公報에 連載된 1984年 11月 17日부터의 「共產治下 北韓五道聯合老會의 旗手 金珍洙牧師」〈1〉~〈9〉回의 內容을 要約하였음. 그는 本校 前身인 崇實專門 졸업생이다.
- 8)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金哲勳, pp. 134—137. 金光洙, 순교자 金哲勳목사, 서울 YWCA, 1979年 6月號. 그는 崇實專門에서 哲學을 전공하였고 재학 시절에 종교부 활동으로 헌신하였다.
- 9)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李裕澤, pp. 138—141.

하였다. 그러나 김목사는 “신학교는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 있으니 땅의 나라에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김인준 교장은 그해 겨울을 두툼한 솜바지를 입고 버선을 신고 다녔다. 언제 어디에서 공산당에게 끌려가게 돼도 거기에 대한 단반 준비의 태세이었다. 공산당은 1946년 11월 그를 체포하여 갔다. 그러나 그의 인품이 너무나 훌륭하여 취급하기 거부하여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1947년 1월 17일에는 소련군사령부 특무대에서 연행하여 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의 지조를 굽힐 까닭이 없었으며 끝내는 시베리아로 유배되어 거기에서 순교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sup>10)</sup>

### Ⅲ. 基督教政黨 出現과 教會指導者의 受難

북한 지역에서는 도시와 지방을 막론하고 8·15 해방의 기쁨을 교회로 중심으로 하여 만끽하였다. 전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이라든지 자치회의 활동에 있어서 그밖의 여러 단체의 활동이 모두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추가 되어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 있어서의 기독교인의 중심적 위치를 잘 말해주고 있었으며, 또한 북한지역을 강점한 소련군 당국에게 앞으로 어떻게 기독교인을 다루면서 정치해 나갈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한국의 간디’로 통하는 조만식은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로서 같은 교회 장로인 오윤선과 함께 평안남도 전국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소련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기독교인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고 자기들의 사람으로 대체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어느날 조만식 위원장은 소련군 사령부로 연행되어 갔으며, 사령관 스티코프 대장은 자기네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추궁을 하고 권총으로 위협하였다. 그러나 조만식은 이때에 가슴의 옷을 헤치면서 “짜라”고 일갈하여 나라 사랑하는 결사적 의지를 세차게 과시하였다.<sup>11)</sup>

북한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였고 대다수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무신론자가 강요하는 굴종에 쉽게 순복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조국의 해방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독교 이념과 정신으로 조국을 재건하고 새로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태도에 분개하여 일대 박해와 탄압을 노골화 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신의주에서는 1945년 9월 18일 한경직과 윤하영<sup>12)</sup>의 두 목사가 주동이 되어 평안북도 기독교인을 기반으로 하여 기독교사회민주당을 결성하였다. 이는 실로 남북한을 통한 한국 최초

10)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金仁俊, pp. 122—125. 그는 崇實專門 재학 시절에 武力抗日團體인 國民會의 要員이었다.

11) 金光洙, 韓國基督教人物史, 曹晚植, pp. 219—228.

12) 당시 新義州第一教會 담임목사로 있었으며 그후 월남하여 忠淸北道 知事를 역임하였다.

의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의 개량을 그 정강으로 한 것이 훌륭하였다. 기독교사회민주당은 얼마 후에 더 많은 북한 전 주민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이름을 사회민주당이라고 바꾸었다.<sup>13)</sup> 지방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지부가 조직되었고 자못 그 기세가 높아지자 겁을 집어먹은 소련군 당국은 함경도로부터 열성당원을 차출하여 무지한 노동자 노민을 선동하여 방해공작을 펴기 시작하였다.

11월 21일 용암포에서 사회민주당지부 결성대회를 개최하려하였을 때 일대 충돌 사건이 벌어졌다. 공산당원들은 금속공장의 직공들을 총동하고 수백명 농민을 동원하며 결성대회 현장을 습격했다. 위원장 장원봉을 비롯하여 단상에 앉아있던 모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며 홍석황 장로는 몽둥이로 얻어맞아 생명이 끊기고 12명이 중상하는 큰 변을 만났다. 단상을 수라장으로 만든 폭행자들은 여세를 몰아 부근에 있는 교회당과 목사 주택을 습격하여 파괴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sup>14)</sup> 이를 본 용암포 중고등 학생들은 분기하여 공산당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려 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오히려 진압 당하였다. 그러나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정의감은 도저히 그대로 사라질 길이 없어, 그와같은 울분은 신의주의 중고등 학생에게 파급되어 마침내 시내 여섯곳 학교에서 약 5천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일어나 일대 시위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시위대원들은 11월 23일 오전 9시에 집결하여 정오에는 신의주 공산당 본부와 인민위원회 본부 그리고 보안서를 일제히 습격하였다. 학생들은 “공산당이 물러가라”고 소리높여 외쳤으며 청사 앞으로 쳐들어갈 기세이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공산당들은 기관총을 난사하였으며 공중에서는 소련군 비행기가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이로 인하여 24명 학생이 생명을 잃었고 350여명이 크게 부상하였다. 소련군 사령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1천여명을 체포 연행하였으며, 그중의 2백명 학생이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 소련군사령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사회민주당의 간부를 모두 검거하였으며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다.<sup>15)</sup>

1945년 11월 초에는 평안남도 정주 옥호동 약수터에서 평양 장대현교회의 김화식 목사를 중심으로 몇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기독교자유당을 결성하기 위한 정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당의 조직은 여러가지 사정과 애로가 있어 당분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7년 9월 23일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가 결정되고 미국의 한국독립안의 상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급속히 진전되었다. 만약에 그 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남북통일의 정부 수립은 눈 앞에 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김화식목사는 김관주, 황봉찬 목사

13)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十年史, pp. 62-63.

14) 위원장인 張元鳳집사와 洪錫瓚장로가 있는 龍岩浦第一教會에는, 그후 월남하여 仁川第一教會를 창설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한 李基燦 목사가 담임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흥회 인도를 위하여 출타 중이어서 逢變을 免하였다. 龍川老會 金龜俊장로의 證言.

15) 金光洙, 韓國基督教再建史, pp. 48-49. 金光洙, 韓國民族基督教百年史, p. 110.

그리고 우경천 장로 등과의 협회를 거친 후에 고한규 장로를 당수로 추대하여 1947년 11월 19일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정에서 결단식을 거행하기로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결단식 하루 전날에 모든 정보가 공산당 내무서에게 탐지된 바 되어 결단식을 거행하려던 직전에 김화식 목사를 비롯하여 40여명 교회지도자 간부 일동이 일망타진으로 체포되었다. 김화식 목사는 이 사건으로 소위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18년의 장기 징역형을 언도 받았으며,<sup>16)</sup> 그 이후에도 기독교 신앙의 변절을 강요당하는 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생명을 바쳤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옥사 혹은 시베리아 유형의 큰 수난을 만났다.

#### IV. 章臺峴教會 事件과 彈壓의 本格化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맞는 3·1절을 위하여 북한지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날을 보다 뜻깊게 지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2월 7일에, 소련군에 의하여 급조된 북조선인민위원회로부터 3·1절 행사를 교회가 거행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전갈이 시달되었다. 그러했지만 교회에서는 3·1운동을 위하여 주도하여 만세를 불렀던 당시를 회상해서라도 물러설 수가 없다 하여, 더우기 이러한 일로 신교의 자유를 박탈 당해서야 되겠느냐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평양 시내의 교역자들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다짐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평양 내무서에서는 60여명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행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행사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계속 진행이 되었다.

3월 1일이 되자 평양교회의 연합 3·1절 기념 행사는 오전 10시를 기하여 장대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교회당은 무장 경비대에 의하여 겹겹이 포위되었고 내무서원은 예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협박을 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오도연합노회 회장인 김진수 목사는 수십명 기독교 청년의 호위를 받으면서 등단하여 사회하였으며 그의 인도에 따라 찬송가와 기도 순서에 이어 황은균 목사<sup>17)</sup>가 열편 강연으로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황은균 목사는 한국의 신탁통치안은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며 한국 민족의 자주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여 마지않았다. 황목사의 사자후가 끝나자 5천명 교인들은 일제히 엎드려 조국을 위한 통성 기도에 돌입하였다. 그 기도소리는 하늘에 뻗치고 땅을 진동하는 것 같았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당황한 내무서원들은 황목사를 억지로 끌어다가 자동차에 실었다. 신도들은 모두가 십자기와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절규하였고 ‘믿는 사람들과 군병 같으니’의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 무장경비대원들은 총을 겨누어 실탄사격을 가할 자세를 취하였으나, 신도들은 더욱 기세를 높여 시가행진으로 돌입하였다. 거리를 누비면서 십자로에 이를

16)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金化湜, pp. 126—129.

17) 黃殷均목사는 서울 聖都教會를 시무하였다.

때마다 시위 신도들은 땅에 주저앉아 눈물을 뿌리면서 목놓아 기도하였다. 이에 감격한 수 많은 군중들마저 합세하여 그 기세는 실로 충천하였다.

이날에 실탄사격은 소련 군정관의 만류에 의하여 중지되었다. 일촉즉발의 험악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용암포에서의 유혈 참극의 실패를 되풀이 할 것 같아 취해진 조치였다.

33인 민족대표 유여대 목사<sup>18)</sup>와 김병조 목사<sup>19)</sup> 양전백 목사를<sup>20)</sup> 배출한 평안북도 의주교회는 더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다. 수천명 교인들은 의주동교회에 운집하여 김석구 목사의 인도로 3·1절 기념식을 거행하려 하였다. 공산당은 교회당을 습격하여 강대상을 뒤집어 엎고 성경을 내동댕이치고 김목사를 체포하여 갔다. 그리고 김목사의 목에 '민족반역자' '미제국주의 앞잡이'라는 글귀를 쓴 꽃말을 매어달고 우차에 올려 실은 다음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욕설과 야유를 퍼부어 모욕하였다.<sup>21)</sup> 이와같은 만행은 3·1절 행사를 거행하는 도처에서 서슴없이 저질러졌다. 너무나 의분에 치밀은 의산노회장 김관주 목사는<sup>22)</sup> 공산당의 비행을 규탄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3월 17일에 신도대회를 소집하여 성토하는 연설로 맞섰다. 교회와 괴뢰정권과 사이의 대결은 더욱 더 가열되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죽느냐 사느냐'의 막다른 판국으로 들어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 V. 主日選舉 反對와 基督教徒聯盟의 背行

3·1절 교회사건 내지 장대현교회 충돌 사건 이후로 공산 당국은 일부러 행사를 거행할 때마다 주일을 택하여 기독교인의 참가를 요구하였고 교회당을 정치 강연 장소로 제공하라고 괴롭혔다. 1946년 11월 3일은 북괴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소위 총선거의 날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였다. 북한오도연합노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대현교회에서 회합을 열고 5개 조항을 채택하여 총선거 참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는데 그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3)</sup>

“북한의 2천 교회와 30만 기독교 신도들은 신앙의 수호와 교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5개조

18) 劉如大 목사는 3·1운동 당시에 장로교 義山老會에 소속한 목사로서 義州東教會를 시무하고 있었다.

19) 金秉祚 목사는 3·1운동 당시에 平北 定州教會를 담임하고 있었으며, 그후 上海로 亡命하여 臨時政府의 要人으로서 또한 上海 韓人教會에서 목회하면서 독립운동을 계속 추진하였다.

20) 양전백목사는 한국교회 長老敎의 최초 일곱명의 목사 중 한사람으로, 3·1운동 당시에는 宣川北教會를 시무하고 있었다. 金光洙, 韓國基督教受難史, pp. 45-46. 金光洙, 長老會神學大學七〇年史, p. 30.

21) 金錫九 목사는 이 사건 이후, 공산당 기관원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殉敎하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22) 金冠柱 목사는 基督教自由黨 사건에도 연루된 人士로서, 그도 또한 行方不明이 되었으니 순교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3) 金光洙, 共產治下 北韓五道聯合老會 旗手, 基督公報, 1984年 10月 27日號.



항의 교회 행정 원칙과 신앙생활의 규범을 결정 실시하고 있어온 바, 귀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성수주일을 생명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에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둘째, 정치와 종교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셋째, 교회당의 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회당은 예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한다.

네째, 현직 교직자가 정계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직을 사면하게 되어 있다.

다섯째,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위의 결의문을 소련군 사령부와 북괴정권의 김일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회장 김진수 목사와 김화식, 김철훈, 김길수,<sup>24)</sup> 지형순,<sup>25)</sup> 최택규,<sup>26)</sup> 이유택 목사 등 7인이 선정되었는데 모두가 쟁쟁한 신앙의 투사들이었다. 이들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의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김진수 목사의 “우리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는 심정으로 지금 떠납니다”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강경한 대결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결의문을 보게되자 북괴 당국자들은 어지간한 탄압으로는 교회를 휘어잡지 못할 것이라고 알아차렸는지, 측면 공작을 펴면서 교회의 피멸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곧 기독교도연맹이란 기구의 출현이었다. 즉 신앙이 철저하지 못한 교역자를 파악하여 매수하기 시작했으며, 또 어떤 교역자에게는 신변의 위협을 가하여 연맹에 가담케 하였다. 이렇게함으로써 교회의 세력을 양분하여 내분과 대립을 조성하면 교회는 약화되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김일성의 외척이 되고 비서격인 북조선인민위원회 서기장인 전직목사 강량옥은<sup>27)</sup> 왕년의 부흥사 김익두(金益斗) 목사를<sup>28)</sup> 감언이설로 꺾어 기독교도연맹의 전면에 내세웠고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활약하여 이름이 있는 박

24) 金吉洙 목사는 平壤 新岩教會를 시무하고 있었으며, 北韓五道聯合老會 書記로 있으면서, 教會 守護를 위해 투쟁하였고 6·25戰亂이 일어나면서 投獄되어 순교하였다.

25) 池亨淳목사는 平壤 箕林里教會를 시무하였으며 北韓괴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부흥사로 활약하면서 공산당의 비행을 심하게 폭로하였다. 1948년 1월 검거되었으며 평양감옥을 거쳐 재동탄광에 가서 복역하다가 銃殺刑으로 人生의 최후를 장식하였다.

26) 崔宅奎목사는 定州中央教會를 시무했으며 平東老會長을 역임하면서 기독교도연맹 가입을 끝내 거부하였고, 1949년 12월 政治保衛部에 연행된 후 行方不明이 되었다.

27) 金日成의 외조부인 康敦煜장로가 康良煜의 六寸兄이 된다. 강량옥은 해방 직후 平壤 高井教會 목사로 있을 때 反共青年의 습격으로 長男이 被殺되는 逢變을 겪었다.

28) 金益斗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9회 총회장을 역임한 人物이다. 그는 북괴 공산정권 치하에서 어용단체인 基督教徒聯盟의 총회장으로 일하는 一大汚點을 남겼다. 그러기에 그가 한국교회 역사상 최대의 부흥사요 이적을 행하기도 한 권능의 인물이었으며, 또한 6·25전란 시기에 공산군의 총탄에 피살된 최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로서의 존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순 목사를<sup>29)</sup>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연맹의 위신을 갖춰 출범을 서둘렀다. 평양시내의 교역자들은 냉담하였으나 황해도 일원의 교역자들은 그 지방 교계의 인물인 김익두 목사의 동향이 크게 작용하였고 또한 한독당사건에<sup>30)</sup> 연루되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교직자들이 상당한 수로 가입하게 됐다. 함경도 일대에서도 적지않은 수의 사람이 연맹에 가입하였다.

기독교도 연맹은 북한오도연합노회에 대항하여 아주 정반대로 된 내용을 공개하였다.<sup>31)</sup>

첫째, 우리는 김일성 정부를 절대 지지한다.

둘째, 우리는 남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교회는 민중의 지도자가 될 것을 공약한다.

네째, 그러므로 교회는 선거에 출선 참가하기로 한다.

공산정권은 이상과 같은 기독교연맹의 회피한 결의문을 북한 전역의 각 교회에 발송하여 그대로 순응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평안남북도의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그 명령에 불복하고 그날에 교회당 안에 농성하며 교인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가지면서 선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기독교인의 뜻이 공고함을 본 공산도배들은 교회당 안에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방책을 강구하여 후일을 기약하면서 어용 기구로 만든 기독교도연맹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교회 탄압에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하였다.

기독교도연맹은 처음에는 교역자에게만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1948년부터는 일반 교인들도 가입하라고 강요하였다. 1949년에 가서는 각 도 대표들을 불러모아 연맹 총회를 구성하였으며 총회장에 김익두, 부회장에 김응순<sup>32)</sup> 서기에는 조택수의 각 목사에게 감투가 씌워졌다. 그리고 군, 면에 이르기까지 연맹 지부를 확대하여 점차로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북괴정권에서는 온갖 구실과 죄목을 붙여 오도연합노회 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을 검거 투옥하였는 고로, 그 존재가 말살된 오도연합노회로 부터의 말썽은 없어진 상태에 있었다.<sup>33)</sup>

다음으로 북괴정권이 좋지않게 생각한 집단이 신학교의 존재이었다. 해방 후, 북한교회에 서는 평양에 장로회신학교와 감리교 경영의 성화신학교가 있어 교역자 양성의 사명을 다하고

29) 朴尙純목사는 191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總會 파송으로 중국 山東省으로 건너가 선교사업에 큰 성과를 올린바 있었으나, 1939년 排日分子로 규정되어 강제퇴거령으로 귀국한 경력을 갖고 있다.

30) 韓獨黨은 金九가 만든 정당으로, 南北韓에 걸친 총선거를 주장한 그가 북한에서의 정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신이 黃海道 출신이요 또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직체가 教會였는 고로 황해도 일대의 교역자와 교인들을 상당한 수로 포섭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공산당 정보기관에 발각되어 약점이 잡힌 교회 지도자들은 부득이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여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정의 이야기이다.

31) 金光洙, 韓國基督教再建史, pp. 55-56.

32) 金應珣 목사는 황해도 출신으로 日帝治下 마지막 總會인 194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1회 總會長을 역임하였다. 그때의 총회록은 우리 글이 아닌 日本語로 되어 있어 特異하다. 그는 共產治下 기독교도연맹 총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한 實權을 갖고 행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3) 趙澤洙 목사는 193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黃東老會가 조직되었을 때, 부서기가 되었고, 기독교도 연맹의 서기로 있는 당시에 黃東老會長의 책임도 맡고 있었다.

있었다. 장로회신학교에는 교장인 김인준 목사가 구금된 이후로 이성휘 목사<sup>34)</sup>가 후임 교장이 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성화신학교에는 배덕영 목사가 교장으로 있었다. 이 두 신학교에는 약 6백명 학생들이 모여서 생명을 내걸고 십자가 군병이 되고자 진리를 탐구하는 생활에 열중하고 있었다.<sup>35)</sup>

공산정권 당국은 이러한 신학생들의 모습이 눈안의 가시처럼 괴로웠고 보기가 아주 싫었다. 마침내 그들은 두 신학교를 하나로 묶고 신학생의 숫자를 10분의 1로 감축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그 실행을 기독교도연맹에게 시달하였다. 기독교도연맹 간부들은 1949년 12월 겨울방학에 들어가자 이러한 계획을 빈틈없이 진행하였으며, 1950년 봄 학기를 맞아 신학생들이 등교하였을 때는 학교 간관이 기독교신학교로 바뀌어 있었으며 연맹총회 부회장인 김응순 목사가 학교 운영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공산치하에서 완전히 어용화된 기독교도연맹은 이 신학교를 좌우하여 적색화하는 작업에 광분하였다. 동조하지 않는 교수나 등교 아니한 학생들은 전부 정보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았다. 결국 교장이었던 이성휘 목사나 배덕영 목사를 비롯하여 최지화,<sup>36)</sup> 김태복<sup>37)</sup> 이학봉,<sup>38)</sup> 박경구,<sup>39)</sup> 강문구,<sup>40)</sup> 김영운<sup>41)</sup> 목사 등의 교수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공산당에게 희생되었으며, 학교의 운영을 반대한 학생들은 지하로 은거하거나<sup>42)</sup> 수사의 손길을 피하여 도피생활로 들어가야만 했다.

34) 李聖徽목사는 1947년 1월 20일 평양의 장로회신학교 校長이 되었으며, 공산당의 지시로 감리교 聖化神學校와 강제 통합이 되어 基督教神學校로 변모한 얼마 후에 구금되어 생명을 잃었다. 그는 美國샌프란시스코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신학교에서 天文學과 創世紀를 강의하였고 당시 北韓社會에서 唯一의 神學博士 학위의 소지자였다.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李聖徽, pp. 174—177.

金光洙, 韓國基督教人物像研究, 「복된 말씀」, 1977년 5월호.

金光洙 집필, 平壤神學校 마지막 校長, 人物春秋. 新亞日報, 1975년 제3182, 3183, 3184호.

35) 裴德榮목사는 聖化神學校에서 1949년 12월 11일부터 심령부흥회를 개최하면서 신학교 안에 있는 소련의 스타린과 북괴 김일성의 사진을 모두 철거해 버렸다. 며칠 후인 16일 그는 공산당원에게 연행되었고 그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다.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p. 181.

金光洙, 韓國基督教再建史, pp. 57—59.

36) 崔志化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0회 총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교무과장으로 있으면서 組織神學을 교수하였다.

37) 金泰福목사는 평양 장로회신학교 專任 教授로 있으면서 新約 註解와 헬라語 과목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38) 李學鳳목사는 평양 南大門教會를 시무하였으며, 實踐神學 분야를 맡아 교수하였다.

39) 朴敬倅목사는 長淵 西部教會를 시무하였으며 黃海老會 派送教授로서 평양 長老會神學校에서 로마書와 牧會書信을 가르쳤다. 당시 교수의 充員補充을 위하여 適格者가 있으면 各 老會에서 부담하여 輪番으로 신학교에 파송하는 제도가 있었다.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朴敬倅, pp. 182—185.

朴鳳玉, 共產黨과 教會·教役者, 크리스찬신문, 제1186호, 제3면.

40) 姜文求목사는 평양 景昌門外教會를 시무하면서 장로회신학교에 出講하여 神學難題選評등 조직신학 분야의 과목을 가르쳤다.

41) 金榮潤목사는 황해도 安岳邑教會를 시무하였으며, 老會 派送教授로서 바울書信을 가르쳤다.

朴聖謙, 황해도회 100회사, p. 61.

42) 평양신학교에 재학중이던 筆者는 이때 「基督教神學校」登校를 거부하였고 은거생활에 들어가 千辛萬苦로 지내다가 越南하여 長老會神學校에 轉入學하여 神學工夫를 마쳤다.

## Ⅵ. 六·二五 戰亂을 前後한 殉敎者의 續出

6·25 남침을 획책하고 있던 북괴는 그 일에 앞서 교회 지도자를 향한 철저한 소탕에 눈을 올렸다. 1950년 봄 평양 연화동 교회에서 모인 기독교도연맹 회합에서는 아직까지 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약 60명 목사들에게 파면 처분을 한다는 이상한 결의를 하였고, 이렇게 파면당한 교역자들은 곧 정치보위부에 그 명단이 들어가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고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해서 또는 어용 인물이라고 해서 신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시대에나 배신자가 있기에 마련인 것이다. 기독교도연맹 주동자들도 6·25전란을 일으키기 직전에는 공산당에게 감시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됐고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면서는 교역자라고 하면 그 누구든지 사정없이 보이는데로 연행되어가 사형에 처해졌다.

교회당 건물은 미국 선교사들이 세웠으니 적산이라고 하는 구실로 탈취 당했으며 전쟁 중 연합군 비행기의 폭격이 심하여지자 십자가 표시가 있는 건물은 폭격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온갖 전쟁 무기를 교회당 안으로 대피시키고 일종 군수 기지화 하였다. 신학교 교사도 접수당하여 최고 인민재판소로 사용되었고, 여기에서 쫓겨난 신학생들은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마포삼열 기념관(Moffett Memorial Hall)으로 갔으나 그것도 적산이란 명목으로 공산당에게 점령되어 또 다시 신학생들은 그 옆에 있는 서문밖 교회로 옮겨가 그곳에서 공부하였다. 평양 신양리에 있는 양촌의 선교사 주택들은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당 실권자들의 저택으로 사용됐으며 숭실학교 큰 건물은 북조선공산당 본부가 들어앉아 사용하였다.

9. 28수복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과 연합군이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작전이 개시되자 북괴 군과 공산당, 내무서원과 정치보위부 기관원들은 교회당을 전부 파괴하였고 기독교인은 보이는대로 살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살해 방법에 있어서는 총살, 자살(刺殺) 혹은 생매장 등등으로 그 잔학상이야말로 형언할 수 없으리만큼 잔학하였다.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봉사한 백인숙 여전도사는<sup>43)</sup> 1950년 6·25전란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공산도배에게 끌려갔다. 그녀는 깊은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여 생매장으로 목숨을 잃었다. 김순효 전도사는 교회의 양무리를 끝까지 돌보다가 1951년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던 중 교회로

북한 공산당의 교회 박해에 관하여는 本校 理事였던 Samuel H. Moffett 박사가 'The Christians of Korea, Communist Presswres, pp.76-80에서 저술한 내용이 있다.

43) 白寅淑 전도사는 朱基徹, 金哲勳, 丁一善의 세 분 殉敎 牧師를 성심을 다해 섬기면서 敎役에 충성을 다한 위대한 女性 敎役者이다.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敎史, 白寅淑, pp. 142-145.

金光洙, 韓國民族基督教百年史, p. 78.

金光洙, 韓國基督教受難史, pp. 227-228.

물려든 공산도배에게 붙들려 수 없이 매를 맞고 그대로 숨졌다. 정일선 목사는<sup>44)</sup> 1950년 6월 26일 한밤중에 공산도배에게 체포되어 평양 감옥에 수감되었다. 9·28수복 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공산군은 국군에게 쫓겨어 북으로 패주하면서 감옥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충천하였으며 정목사는 불길 속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 유계준 장로는<sup>45)</sup> 6·25 전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공산당에게 연행되어 평양감옥에 수감됐다. 그는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았으나 끝내 신앙을 변치 아니했고 총살되어 순교하였다. 평양 남산현교회의 송정근 목사는<sup>46)</sup> 기독교자유당 결성시에 감리교 대표로 추대되었다가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1950년 6월 24일 밤 6·25 직전에 공산당에게 끌려가 10월 11일 학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1운동 거사 때, 33인 민족대표의 한분이었던 신석구 목사는<sup>47)</sup> 소련군의 만행과 공산당의 비행을 신랄하게 꾸짖으며 김일성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면서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데 식량을 소련에게 보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1950년 10월 10일 76세의 노령으로 총살형을 당하여 순교하였다. 황해도 누리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조석훈 목사는<sup>48)</sup> 국군의 북상으로 쫓겨가는 북괴군에게 체포되어 사정없이 퍼붓는 따발총에 맞아 생명을 잃었다.

그밖에도 공산 마수에 의하여 생명을 빼앗기고 순교의 피를 흘린 성직자의 수는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 혹은 5백명이라고도 하고 또는 8백명이라고 계수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 수는 명확하지 않다. 하여튼 북한 교회에서는 6·25전란을 전후하여, 1·4후퇴를 기회로 월남한 교역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생명을 잃었다고 보아 잘못이 없을 것이다. 일반 교인들의 희생 당한 수야말로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고나 할까, 그 수를 헤아리기는 도저히 어려워 너무나 엄청난 피해이었다.

북한교회에서 장로회에 소속한 교역자로서 순교한 명단을 아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화식, 김영윤, 김인준, 김진수, 김병조, 김길수, 이유택, 김철훈, 정일선, 허천기, 김태복

- 44) 丁一善 목사는 日帝治下 神社參拜에 불응하였고 北傀 기독교도연맹 加入도 거절하였다.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丁一善, pp. 170—173.
- 45) 劉啓俊 장로는 日帝治下에서 強要된 創氏改名을 끝까지 아니하였고, 共產黨에게 평양 산전현교회에 압수 당하자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바쳤으며, 가족을 모두 越南시키면서도 본인은 남아 있어 教會를 지키다가 殉教 祭物이 되었다.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劉啓俊, pp. 146—147.  
金光洙, 韓國基督教受難史, p. 233.
- 46) 宋貞根 목사는 당시 감리교 西部年會長과 聖化第學校 理事長의 무거운 책임도 맡고 있었다.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宋貞根, pp. 178—181.
- 47) 申錫九 목사는 人民裁判에서 「평양의 大同門거리를 스탈린 거리라고 하고 牧丹峯을 모로토프峯이라고 하고 大同江을 레닌江이라 한 것 등은 나라를 소련에게 팔아먹는 逆賊 행위이니 옛 이름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나를 재판하라」고 외쳤고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먼저 하나님 부터 밀어야 한다」고 진도하였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는 처음에 10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6·25때에 銃殺刑으로 순교하였다.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申錫九, pp. 62—65.
- 48) 金光洙, 韓國基督教殉教史, 趙錫勳, pp. 186—189.

기주복, 박경구, 원춘도, 조석훈, 한순옥, 한의원, 유동희, 정용현, 김용국, 김순호, 이창실, 오연백, 김창원, 민병순, 김정재, 조봉석, 장윤성, 조은대, 지형순, 백재명, 민응렬, 장규명, 백영삼, 김창규, 이순도, 김석창, 최완복, 문병록, 이춘삼, 박종필, 문준희, 김광세, 조희영, 권희봉, 김남호, 조순천, 유정철, 나시산, 손영길, 김덕모, 유동천, 박성화, 정상인, 김광현, 박성모, 김상철, 장기승, 정경희, 최문성, 임창륜, 이덕재, 장형일, 유재변, 임홍주, 최원조, 엄창주, 임형석, 서용문, 김련, 이광제, 박용근, 최지화, 장도신, 이학봉, 박성빈, 이정흙, 김인섭, 임영목, 석목린, 지세연, 이성휘, 김익두, 한덕교, 장윤홍, 박응용, 이병임, 진학철, 박기주, 조기수, 김인도, 장송학, 김준걸, 오계준, 서학연, 서동원, 박승진, 김영문, 김익재, 김영범, 최강은, 박문일, 전현석, 이용직, 정관백, 이해영

이렇듯이 피어린 순교의 죽음이 어느 때에 가서 복음의 열매를 복한 땅에서 맺게 할 것인가, 순교자의 신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 꿈에도 소원인 조국 강토의 통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VII. 北韓教會 存在의 全滅과 自由 黎明의 苦待

우리 국군이 북진하여 1950년 10월 10일 평양을 수복하게 되자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들과 북한에 적을 가졌던 교역자들은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크게 일어났다. 그것은 국군과 함께 북한 자지로 진격한 기독교구국회 선무반의 보고를 통하여 북한교회의 재건과 선교사업의 재개가 시급한 상황임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sup>49)</sup> 그리하여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한국 주재 선교회 총무인 아담스(Edward Adams, 安斗華) 목사, 해방 전까지 평양에 주재하면서 선교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킨슬러(Francis Kinsler, 權世烈) 목사<sup>50)</sup>, 허일(Harry J. Hill, 許一) 목사 등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이인식<sup>51)</sup> 목사, 윤하영 목사, 한경직 목사<sup>52)</sup> 그리고 김양선 목사<sup>53)</sup> 등이 사절단을 형성하여 북으로 전진하여

49) 1950년 7월 3일 大田第一教會에 기독교 각교파 대표들이 모여 「大韓基督敎救國會」를 결성하였다. 여기에서는 宣撫, 救護, 放送 등 국방상의 중요한 임무를 도와 자발적으로 헌신하였다. 그러면서 약 3천명 義勇軍을 모집하여 전투에 참가케 하기도 했다.

9·28 수복 이후 國軍이 北韓地域으로 진격하자 약 1천명 선무공작대원이 뒤따라가 활약하였다. 金良善, 韓國基督敎解放十年史, p. 79.

50) 킨슬러 宣敎師는 無產兒童을 위한 聖經俱樂部 운동을 창설, 다대한 성과를 거뒀으며, 평양의 崇實大學과 장로회신학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nia Church in the U.S.A., vol. II, pp.316-319.

51) 李仁植 목사는 大韓예수敎長老會 제23회 총회장을 역임한 분이다.

52) 韓景職 목사는 서울永樂敎會 元老敎師로서, 崇實大學의 서울 再建後에 제6대 學長을 역임하였다. 송전대학교 80년사, 1979年.

金光洙, 韓國敎會人物選, 韓景職, 복된말씀, 1974年 5月號.

53) 金良善 목사는 韓國基督敎博物館을 창설 운영하던 중, 1967년 崇實 開校 70주년을 맞아 自身이 史學科 교수로 奉職한 母校에 소장품 3,660점 전부를 기증하였다.

아직도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는 평양성에 돌입하였다.

전화를 심하게 입어 폐허가 된 평양시내의 교회를 일주하는대로 목사와 교인들은 지하에 숨어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교회당은 모두 군수공장으로 변모해 있었으며 불모양없이 난잡하였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연락이 취해져 한사람 두사람씩 모습을 드러내어 다음 주일에는 교회마다 모두 눈물어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오후 2시에는 서문밖교회에서 사절단 일행을 맞는 환영 예배를 연합하여 거행하였다. 어디에서 모여들었는지 3천명 교인이 운집하여 사절단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며 교인들은 구사일생으로 생을 얻은 감격을 하나님님의 은혜로 알아 뜨겁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사절단 선교사들은 평양 선교구의 복구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양촌의 선교사 주택과 신학교와 숭실대학 그밖의 선교사 소관의 건물들을 일일이 찾아 관리하는 일을 개시하였다. 북한 교회의 시찰을 마친 사절단 일행은 일단 서울로 돌아가기로 하고 현지 북한 교회를 위한 선교의 재개를 위하여는 허일 선교사만 평양에 체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조금 더 지나서 12월 초에 중공군이 대거 한국 전선에 개입하게 되어 허일 목사도 부득이 평양을 떠나 남한으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허일 선교사는 피난 길에 오른 수만명 신도들의 대동강 도하를 희생적으로 도왔으며 자신은 최후로 몇 사람의 교역자와 함께 남하하는 도상에 올랐다.

국군과 연합군이 진주하지 않은 지역의 북한 교회는 더 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다. 그것은 박해자들이 마음 놓고 박해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남한으로부터 쫓겨간 북괴 배잔병들의 보고에 의하여 기독교 신자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이 아주 크게 발작한 이유가 가세되었다. 해방 전에 한국에서 가장 교회 분포 밀도가 높았던<sup>54)</sup> 평안북도 용천(龍川)과 의주(義州) 일대의 교인들은 모두가 다 살해되는 비극을 만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날 북한의 지역에서는 하나의 교회 한 사람의 교인의 존재도 지상에서는 전혀 찾을 길이 없다.<sup>55)</sup> 실로 북한의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너무나 혹심한 박해를 받았다.

북괴 정권 당국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상존하고 있으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날조된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사이

그가 北韓教會 訪問使節團을 편성할 때에는 基督教戰時非常對策委員會 총무로 활약하고 있었다. 金光洙, 韓國基督教人物史, 金良善, pp. 229-241.  
金光洙, 韓國基督教再建史, pp. 86-89.

54) 해방 직후에 평안북도에는 平東·平北·龍川·義山·山西·三山의 여섯개의 장로교회 老會가 있었으며, 그 教勢는 전국 장로교인 30萬名 중에 10萬名이 집중되어 있었다.

金日成은 “惡質 종교인들이 종교의 간판 밑에서 反革命的 行위를 조작하고 종교적 사상을 扶植하고자 하는데 對해 철저히 鬭爭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기독교를 공산주의의 敵으로 몰아부쳤으며, 1972년 제정된 新憲法에는 「公민은 신앙의 자유와 反宗教 선전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여 종교 탄압을 合法化하고 있다.

에 북한의 어느 문헌에서도 종교라는 용어 자체가 말살되었으며 기독교는 그 이름마저 알지 못하게 만든 현실에 있어서도, 대외선전 활동을 위하여는 필요에 따라 종교단체를 날조하여 위장공세를 되풀이하고 있다.<sup>56)</sup> 특히 북괴정권은 최근에 이르러 기독교의 국제적 영향력을 인정하였음인지 한국의 기독교세가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1974년 7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가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교직자수와 신도 수 그리고 교회 수 등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북한의 가입은 전면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sup>57)</sup>

북한에는 전략적 위치에서 전혀 명목상으로 된 기독교도연맹이 아직껏 유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는 기독교 신앙인이 개입되어 있을 수가 없으며 다만 위장 평화전술의 일환으로 종교를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공산당 관계 당국의 요로 인물이 배치되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북한과 해외동포 기독교인과의 통일 대화'<sup>58)</sup>라고 하는 선동 단체를 만들어 남북 통일전선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대남 비방선전과 함께 김일성 부자의 세습체제 비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 가소로운 일은 이같은 활동의 가장을 위하여 성경과 찬송가의 발간을 서둘러 약간의 책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는 사실이다.<sup>5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인들의 지하교회 존재는 아직껏 남아 있다고 확인하고 싶다. 철의 장막 속에서 아무리 혹독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도 기독교인이 숨어서 하는 신앙생활마저 끊어버리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안북도 용천에서의 이만화 목사의 점조직(點組織) 지하교회 운동<sup>60)</sup> 등을 통하여 증명된 내용으로서 탄압된 암흑사회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씨앗은 죽지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박천에 있었던

56) 귀순용사 李雄平은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없으며 神學校나 牧師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상투적인 위장 조직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주최의 회합에서 證言한 바 있다.

그러한 위장 단체로는 「기독교도연맹」외에 「기독교민주동맹」 「조선기독교연맹중앙위원회」 「남조선기독교연맹」 「남조선기독교민주동맹」 등이 있다.

‘北韓에 宗教는 있는가?’ 장로회보 2면, 1983년 7월 4日號.

57) 세계교회협의회 가입을 거절 당한 「기독교도연맹」은, 그러나 1975년에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아시아기독교 평화회의와 1976년에는 「세계기독교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신앙과는 관계도 없는 美軍 徵收 등을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58) 1970년대 후반기부터 海外의 교포 한인들을 포섭하여 상호방문과 토론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造作團體를 말한다.

59) 1983년 6월 23일 「北韓의 宗教 말살정책」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文化放送(MBC)에서의 筆者와 국제문제연구소 강인덕 소장과의 對談에서 在美교포 金聖樂목사가 1982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新約이 곧 출판될 것이며 舊約도 교정을 완료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뒤에 長老會神學大學의 羅采雲 新約學 교수는 기독교도연맹 발행으로 된 신약성경을 입수하여 비판을 가한 바 있었다.

60) 1957년 8월 27일 소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시에, 平北 龍川郡에 살고 있는 이만화 牧師 지도하의 약 2千名 地下教인들이 投票所에 나가는 하였지만 투표지를 投票函에 넣지를 아니하여 北傀의 조직적 선거 방식에 항거함으로 일대 경중을 울렸다는 집단투표 거부사건을 말한다.

共產圈問題研究, 北韓總鑑, 宗教篇, pp. 456—457.



찬송가 사건<sup>61)</sup>이라든지 원산 철도공장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운천에서의 태극기를 계양한 기독교인의 발각사건, 개성에 있었던 김정옥 의사의 기도사건 등등은 모두 기독교인의 지하 신앙활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호자료로서 알려지고 있다.<sup>62)</sup>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의 강한 세력이 기독교인의 존재를 없애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하고 있기는 하지만<sup>63)</sup>, 북한 지역에서 표면상은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독교 신앙인의 믿음의 뿌리는 아무리 짓밟힘을 당하여도 결코 죽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여 거기에서 움트고 싹이 나와 하나님 섭리의 진행에 따른 자유의 열매를 맺는 새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게 하고도 남는다.

61) 1959년 봄, 平北 博川의 인민학교 女教師가 찬송가 곡조로 동요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속마음으로 신앙을 갖고 있으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던 동네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북괴 정보기관을 초진장시킨 사건을 말한다.

역사속의 教會, 대한기독교교육협회, p. 155.

62) 北韓總鑑, 社會, 宗教, pp. 458—459.

63) 1985년 9월 22일 오전 6시에, 南北赤十字會談의 결과 北韓을 찾게된 故鄉訪問團 일행은 숙소인 高麗호텔에서 黃俊根 목사의 인도로 主日禮拜를 드렸다. 이는 北韓社會에서 6·25전쟁 이후 35년만에 드린 공식예배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의 교인도 어디서도 교회당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平壤 최초의 교회인 章臺峴教會 자리에는 소위 소년 궁전이 서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公休日是 일요일이 아니라 전력사정에 따라 수요일 또는 금요일로 하고 있다는 北傀 안내원의 말로 미루어 이는 主日廢止를 위한 방법이라고 풀이할 수 있었다.